

‘토사구팽 임창용’ KIA 구단에 무슨 일이...

마운드 변칙 운용 불만에 데업 논란... 최고참 답지 못한 임창용 노장투혼 5강 싸움 기여에도 방출...프로 답지 못한 사령탑·구단

‘최고참’답지 못했던 임창용, ‘프로’답지 못한 사령탑과 구단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4일 임창용과의 인연을 정리했다. 이날 조계현 단장과 임창용은 면담을 하고 재계약 여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월정 도박 파문 논란 속에 고향팀으로 복귀했던 임창용은 3시즌을 보낸 뒤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며 새로운 팀을 찾게 됐다. 올 시즌 임창용은 최고령 세이브 기록 주인공이

됐고, 선발로 변신해 나이를 잊은 투혼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KIA는 임창용을 잡지 않았다. KIA가 설명하는 결별 이유는 ‘신에 욕성’이다. KIA는 실망스러운 올 시즌을 보내면서 체질 개선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FA 선수가 주를 이룬 팀의 몸집 줄이기도 KIA의 고민이기도 했다. 올 시즌 5억이라는 연봉을 받은 임창용은 이런 측면에서 전력 외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리고 마운드 위에서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덕

아웃에서도 기대했던 ‘최고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도 작별의 또 다른 이유가 됐다. 임창용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승부 근성으로 한·미·일 통산 1000경기 출전이라는 위업을 이루었다. 또 하나 임창용이 목표로 했던 지점에는 한·일 통산 400세이브가 있었다. 올 시즌을 382세이브에서 출발했던 만큼 욕심내 볼 수 있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쳤다. 지난 6월 세이브 기회에서 출격하지 못했던 임창용은 이날 경기가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후배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사했다. 변칙 운영과 마운드 차별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면서 임창용은 이후 마운드에서도 최고참의 모습

을 보여주지 못했다. ‘데업 논란’으로 선수단 내부가 술렁거린 것이다. 이날 경기도 승리로 끝났지만 마운드에서도 불만을 노출한 임창용은 ‘팀워크 저해’를 이유로 2군으로 내려갔고, 이에 대한 벌금을 물기도 했다. 오점으로 남은 임창용의 ‘최고참’답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계약 논란에서 김기태 감독과 구단은 자유로운 수는 없다. 선수 생활의 갈림길에 섰던 임창용은 7월 10일 1군으로 풀업되면서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얻었다. 임창용은 이후 팀의 5강을 확정할 10월 12일 롯데전(5.1이닝 2자책점)까지 14경기에 나와 61.2이닝을 던졌다. 선발로 변신한 임창용은 6.42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4패를 기록했다. 임창용에게는 ‘속죄투’였을지도 모를 ‘노장의 투혼’에 팬들은 박수를 보냈다. 5강 싸움에도 힘을 보태며 그는 또 다른 ‘가을 잔치’ 무대에도 섰다. 그만큼 임창용과 팬들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황당한 이별이 됐다. KIA는 내부 엿바탕 속에 며칠 전 그의 1000경기 출장 기념 상품 판매에 들어가면서 팬들의 분노를 키웠다. 김 감독과 구단은 다시 한번 임창용에게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사구팽(土沙丘崩)이 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개인이 아닌 팀을 선택했거나, 끝까지 임창용을 포용하고 있어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



휴식을 끝낸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선수단은 오는 29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내달 27일까지 마무리캠프를 치른다.

‘심기일전’ 다시 뛰는 호랑이 군단

챔스필드서 훈련 재개...내일 가죽한마당·29일 오키나와 출발

‘호랑이 군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와일드카드결정전 이후 휴식을 취해왔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이날 그라운드를 누빈 이들은 ‘말형’ 박경태를 필두로 ‘막내’ 김유신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내년 시즌을 일찍 준비하게 되는 마무리캠프 선수단이었다.

이들은 캠프로 건너가기에 앞서 25일과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워밍업을 하게 된다. 27일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는 선수단은 29일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다. 휴식 후 갖는 첫 훈련인 만큼 선수들은 스트레칭과 러닝 등으로 몸을 풀 뒤 오후 기술 훈련을 진행했다. 상무에서 전역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던 내야수 황대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설레기도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는 것이다”며 “방망이는

자신이 많이 생겼는데 수비가 부족하다. 수비를 잘해야 내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캠프에서 수비에 집중하겠다. 순발력과 떨어지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로 KIA에 합류한 강상수 투수코치도 선수들과 첫 대면을 했다. 합평에서도 잔류자들의 훈련이 진행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아쉬운 수비를 보였던 김민식도 다른 주전 선수들과 달리 일찍 합평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이범호, 김주찬, 안치홍, 김선빈, 임기준, 임기영, 나지완 등 7명의 선수는 오는 30일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내달 4일까지 회복훈련을 하며 재출전을 할 예정이다. 한편 KIA는 ‘총괄 코치’ 체제로 내년 시즌을 준비하게 된다. 수석 코치를 대신해 김민호 수비코치가 야수 총괄코치를 맡고, 강상수 투수코치는 투수 총괄 코치로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수단 관리를 위한 방안이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아쉬운 WS 데뷔전

한국선수 첫 선발 새역사...5회 2사까지 1실점 호투·불펜 난조로 패전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보스턴 레드삭스 1번 타자 무키 베츠에게 초구를 던진 순간, 한국 야구의 새 역사가 탄생했다.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해 투구한 것이다. 류현진은 25일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2018 MLB 월드시리즈(WS) 보스턴 레드삭스와 2차전에 선발 등판해 4.2이닝 6피안타 5탈삼진 1볼넷 4실점을 기록했다. 4회까지 1점만 내준 류현진은 5회 2사 후 제구가 흔들리며 만루에서 마운드를 내려갔고, 라이언 매드슨이 류현진의 책임 주자 3명을 모두 홈에 불러들였다. 결국, 다저스는 보스턴에 2-4로 패하고 1차전과 2차전을 연달아 내졌다. 적어도 5회 2사까지는 호투를 펼쳤던 류현진은 동료의 ‘분식 회계’로 패전의 멍에를 썼다. 한국인

선수의 월드시리즈 두 번째 패전이다. 류현진에 앞서 월드시리즈 마운드에 섰던 선배로는 박찬호와 김병현이 있다. 둘 다 불펜 등판이었다. 박찬호는 선발로 뛰던 전성기 시절에는 한 번도 포스트시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2006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이적한 뒤 처음으로 가을 야구를 경험했다. 김병현은 지금도 역대 최고급 명승부로 꼽히는 2001년 월드시리즈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주전 마무리로 활약했다. 그해 디비전시리즈부터 챔피언십시리즈까지 4경기에서 6.1이닝 무실점 행진을 펼친 김병현은 뉴욕 양키스와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9회말 티노 마르티네스에게 동점 2점 홈런, 10회말 데릭 지더에게 끝내기 솔로 홈런을 맞았다. 2.2이닝 3실점을 기록했던 김병현은 패전 투수가 됐다. /연합뉴스



거포의 ‘한 방’ KS 티켓 주인 가린다

내일 SK vs 넥센 PO 1차전...타자 견제 심해 홈런 먼저 친 팀이 주도권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27~28일 열리는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1·2차전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홈런이다. 정규리그 2위로 PO에 직행한 SK 와이번스는 2년 연속 리그 팀 홈런 1위에 올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를 거쳐 PO에 진출한 넥센 히어로즈는 올해 포스트시즌(PS) 5경기에서 홈런 4방을 터뜨리고 승승장구했다. 포스트시즌에선 중심 타자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기에 홈런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홈런을 먼저 친 팀이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넥센은 올해 가을 잔치에서 홈런의 유용성을 입증한 팀이다. 넥센은 KIA 타이거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6-5로 앞선 7회 제리 샌즈의 좌월 투런포로 승기

를 잡았다. 한화 이글스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거포 박병호의 선제 2점 홈런, 2차전에서 임병욱의 연타석 3점 홈런으로 이겨 전체 시리즈 승패를 갈랐다. SK행복드림구장은 ‘홈런 공장’으로 유명하다. 이 구장에선 올해 KBO리그에서 타진 전체 홈런(1756개)의 13.4%인 236개가 나왔다. 이 곳을 홈으로 사용하는 SK 타자 9명이 SK행복드림구장 홈런 랭킹 상위권을 씌웠다. SK에선 올해 8명의 타자가 두 자릿수 홈런을 터뜨렸고, 타자 전원은 팀 홈런 233개를 합쳤다. 이정후, 이택근 등 중심 타자를 부상으로 잃은 넥센은 홈런 공동 2위 박병호, 김하성, 김민성, 샌즈, 임병욱의 한 방에 기대를 건다. 화끈한 공격 성향의 두 팀이 격돌하는 인천으로 팬들의 시선은 향한다. /연합뉴스